



한국관상지원단 소식

2015 상반기 제12호

발행_ 한국관상지원단 편집_ 한국관상지원단 사무국 (우)138-825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동남로108
MODS빌딩 512호(문정1동) Tel_ 02-421-1968 Fax_ 02-409-1968
E-mail_ koreacontout@dreamwiz.com www.centeringprayer.or.kr

무력함

토머스 키팅 신부/이청준 역, 국제관상지원단 소식지 2014년 6월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2코린 12,9)

무력함은 우리가 가진 가장 위대한 보물입니다.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것을 없애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을 넉넉히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둘러 우리의 단점들을 제거하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 단점들이 하느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도 귀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들 없이는 우리가 결코 깊이 그리고 철저히 변화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실패한다면, 우리가 변화를 통해 도달해야 할 곳은 바로 죽음입니다. 나에게서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영적 여정은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사라지도록 내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자신에게나 타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죽음을 앞당겨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며 총명한 변화의 시작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났다면 죽음과 비슷한 과정을 이미 겪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몸은 소위 '마지막 이동'에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겪지 않고서는 하느님을 뵈 수 없습니다. 그분 현존의 강렬함이 우리를 태워 한 점 얼룩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 동안에는 당신 신성의 위엄과 능력을 숨기셔야 했습니다. 당신의 내적 본성의 엄청난 빛과 능력을 숨기기 위해서 끊임 없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그 신성이 나타난 경우는 거룩한 변모 때뿐입니다. 그때에 그분의 얼굴은 빛나고 그분의 웃은 눈보다 더 희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그분의 신성의 영광이 드러난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제나 가장 낮은 자리, 그야말로 가장 낮은 자리를 선택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찬미와 감사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관심사는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그에게 전달해 주셨기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렵니다.

나는 약함을 달갑게 여깁니다.”(2코린 12,9) 이것이 변화의 태도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영적 체험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는 인간적 나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은 온갖 어려움과 모욕과 시련과 박해와 재난들을 열거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 더 배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허무의 꼭대기에 매달려 있고 발 디딜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 혼란스럽고 갈 곳이 없을 때, 그리고 하느님께서 멀리 계시고 그분에게서 멀어졌고, 심지어 그분에게서 격리되었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느님의 엄청난 사랑을 통해 어둔 밤에 일어나는 그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본성은 이런 식으로 조건지워져 있습니다. 조금씩, 모든 이의 필요와 부르심과 개성과 한계에 맞는 속도로 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잘 고안된 것이기에 전문 심리 요법 같은 어떤 범주로 표현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우리 몸이 생리학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물리학을 통해, 그 몸 자체가 지성을 떠받치는 차원까지 그 다음에는 신적 소통을 떠받치는 차원까지 진화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인간 본성의 모든 요소들이 협력하도록 준비되지 않고서는 하느님의 엄청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온유함과 부드러움과 확고함과 인내로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싶다면 하느님께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분께서 알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무력함은 존재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점점 더 하느님의 능력과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커지는 것 혹은 완벽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까닭입니다.

우리 생애의 이 시점에서 그리고 영적 여정의 이 시점에서 정말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까? 성인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의 문제점은 그것이 그다지 좋지 않은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에 만족하는 셈입니다. 만일 동양인이어서, 열반이나 깨달음, 혹은 어떤 구루의 위대한 지혜를 원한다고 칩시다. 그 목표를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둔 밤입니다. 어둔 밤에야 당신이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자신의 나약함에 만족하고 말 그대로 하느님께 의존하는 존재임을 행복해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단주회의 첫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영적 여정을 이것보다 더 잘 요약한 것은 없는 듯합니다. 첫 단계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무엇에 중독되었든) 다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

렀음을 깨달았습니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변화를 위한 완벽한 태도입니다. 어둔 밤이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갑니다. 그것이 어둔 밤의 역할입니다. 약간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중독자로 지내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해집니다. 하느님의 선성의 심연에 뛰어들

으로써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가 우리의 유일한 재산이 됩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저의 성서적 토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10,39에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거짓 자아가 관심을 가지는 모든 것을 이루려 한다면)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무로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모든 것입니다. 무는 무가 아니라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하느님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대상이 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처럼 됩니다. 곧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모든 것이 됩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무소유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자신의 내적 자아’를 거부해야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멀어지라고 가르치신 그 어떤 대상보다 중요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원 의식도 갖지 않는 것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것이 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이 변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보다 못한 무언가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며, 그것이 하느님의 자비에 면목을 세워주지도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 자신까지 주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 그러나 그는 안다.

칼 아리코 신부/이청준 역,
국제관상지원단 소식지 2014년 6월



수도원에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 끝기도를 드리면서, 수도원장이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천주여,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소서.”

내가 이 기도를 들었을 때, “우와, 너무 심하다. 그냥 ‘주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소서’라고만 하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원장이 “주님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소서” 하고 말하는 것은 듣기 좋습니다. 쉬운 놓아버리는 능력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말했습니다. “나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 중에 일부만 현실이었다.”

매일 우리의 삶에는 죽음이 계속됩니다. 우리 삶에서 온갖 과멸을 야기하며 다가오는 생각을 놓아버리는 것도 죽음입니다.

평화로운 죽음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아직 그것을 마주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재정 고문인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그는 모든 카드를 다 펼쳐두어, 상대방이 온갖 가능성을 모두 보고 매 상황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합니다. 물론 항상 예외는 있습니다. 매 상황에 준비가 더 잘 될수록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더 훌륭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죽음과 관련된 경우는 다릅니다. 특히 온갖 경우의 죽음을 바라볼 때 더 그러합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는 준비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삶의 선물’이라는 DVD 시리즈를 기획한 이유 중 하나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갈 때 혹은 죽음을 준비할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죽음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파스카 신비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죽음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죽음의 순간을 둘러싼 에너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임종 사목을 하고 있는 친구 신부는, 종종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언가 더 해줄 것이 있음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는 병원에 있는 한 남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내와 딸도 있었습니다. 친구 신부는 잠시 그 남자와만 있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마침 그 방에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신부는 그 사람의 침대 옆에 앉았고 그에게 한 마디 하기도 전에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이 말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지만,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 때, 누군가 살면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친구 신부가 올라다보자 딸이 “아빠는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편이 맞을 것입니다.

이제 죽음에 대해 말하고 죽음에 대해 다룰 시간입니다.

토머스 신부와 함께 하는 ‘삶의 선물’ 시리즈를 함께 보니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 DVD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삶을 경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저 죽음과 죽어가는 문제, 삶과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삶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경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하느님의 마음속에 하나의 생 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잉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여정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이 영원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됩니다. 부활의 미사, 곧 장례 미사를 거행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땅자에게는 이 죽음이 그가 겪는 첫 죽음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아홉 달 동안 안락한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허락도 없이 많은 스트레스를 겪으며 강제로 안락한 곳을 떠나 땅이라는 뱃속에 던져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땅이라는 뱃속에 있습니다. 언젠가 이 뱃속을 떠나 하느님의 뱃속, 곧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느님의 집에 들어갈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멋진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통해 그것을 보는 것은 황홀한 체험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아픔과 고통, 혹은 심장의 통증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이라 부르는 불확실한 상황을 포함해서, 여정을 둘러싼 잡음을 없앱니다.

하느님께서는 호스피스 운동을 축복하십니다. 이 운동은 죽어가는 사람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의학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라는 단계에서 ‘우리에게 닥친 일을 마주봅시다’라는 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거룩하고 안전한 공간을 마련해줍니다. 자 심호흡을 하고 생명의 남은 숨을 바라봅시다.

뮤지컬 The Last Ship에 나오는, 스티브 작사한 ‘So to Speak’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소 공동체의 일원이면서 암과 싸우고 있는 한 사제에 관한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는 그 사제가 겪은 일에 관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짤막하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숨쉬기 위한 투쟁 그 이상의 것,
 죽음과 몇 차례 연장전을 펼치는 그 이상의 것.
 우리의 사명이 사랑, 연민, 은총이라면,
 그것은 인내의 시혈도 마라톤 경주도 아니다.
 사랑은 칼이며 사랑은 방패,
 사랑은 우리가 휘두르는 유일하고 찢된 힘,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오직 영원한 사랑 뿐,
 그 때에 배는 항해를 떠날 준비가 되리라... 말하자면.

호스피스는 환우와 그 가족들이, 잉태의 순간부터 배는 준비되었으며 이제 승선하여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도록 돕습니다.

“전능하신 천주여, 이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소서.” 이 말을 자신에게 몇 번 반복해보십시오. 몸속에 그 약을 투여하여, 우리 몸속에 흘러야 하는 무언가가 흐르게 함으로써, 편안한 밤과 평화로운 죽음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십시오.

비방이 있다면, 그것은 놓아버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심 기도에 동참하라고 초대합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모든 소중한 관계에는 대화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애정을 표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상대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배우자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무보다 배우자가 더 중요합니다. 하느님과 우리의 기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하고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묵상하고 숙고할 때도 있습니다. 애정과 찬미의 말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분, 하느님과 그저 침묵 중에 함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향심 기도가 그러한 때입니다.

참으로 향심 기도는 내려놓는 놀라운 과정입니다.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 중의 하나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4세기 사막 교부들, 즉 그 당시의 성인들은 “우리 대부분을 문제에 빠뜨리는 것은 세상이나 육신이나 악마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욕망으로 이끕니다. 욕망은 정염情炎으로 이끕니다. 정염은 행동으로 이끕니다.

향심 기도에서 우리가 놓아버리는 것 중의 하나는 생각입니다. 비평, 상상, 감정, 느낌 등 그 생각이 어떤 것이든 지나가는 것은 무엇이든 놓아버립니다. 어떠한 생각이나 오도록 내버려두고 가도록 내버려둡니다. 아무 생각도 없는 때는 없을 터이지만, 놓아버리고, 놓아버리고, 놓아버리는 태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고요한 기도 중에 하느님의 품 안에서, 아무런 계획이나 근심이나 염려 없이 그저 있기만 한다면, 그 시간은 하느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시는 특별한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저 하느님과 함께 있는 단순성이 일상으로 파급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일상 속에서 모든 사건과 대화에서 우리 자신을 주장하고, 일일이 대응하며, 우리가 옳아야 한다는 당위성을 놓아버릴 수 있게 됩니다.

놓아버리는 수련을 함으로써,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이 땅의 뱃속에 머무는 일을 더 쉽게 놓아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연령을 위한 기도를 바칠 때 많은 이가 함께 바치는 일반적인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그에게 주소서 주님,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그들이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그들과 세상을 떠난 모든 신자가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를 죽음에 적용시켰을 때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향심 기도에서 우리는 동의함으로써 주님과 영원한 안식에 들게 됩니다. 동의함으로써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원한 빛이 우리 안에 비칩니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있는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에페 5, 8~9) 평화가 우리 삶 속에 들어오며, 공동체 의식이 더욱 커집니다. 이 공동체 의식은 때로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부릅니다.

이 DVD 시리즈에서 토머스 신부는 향심 기도를 수련하는 이들 대부분이 다 아는 사실에 대해 언급합니다. 즉 향심 기도는 죽음에 대한 최고의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문제, 특히 우리 삶에서 매우 소중한 것들을 놓아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 매우 파격적입니다. 향심 기도 중에 우리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 전 존재를 하느님께 내어드리며 말합니다. “당신께서 하셔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 라면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향심 기도가 삶의 일부가 된 우리에게 향심 기도는 죽음을 위한 가장 강력한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에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 20) 혹은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 38)

이 시리즈에서 토머스 신부는 말합니다. “죽음의 과정에는 영적 여정의 전 과정이 축적되어 있다. 이 때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승복은 삶의 선물 자체도 포함한다.”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했듯이, 여정은 실제로 축소의 문제입니다. 놓아버리고 놓아버립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축소의 여정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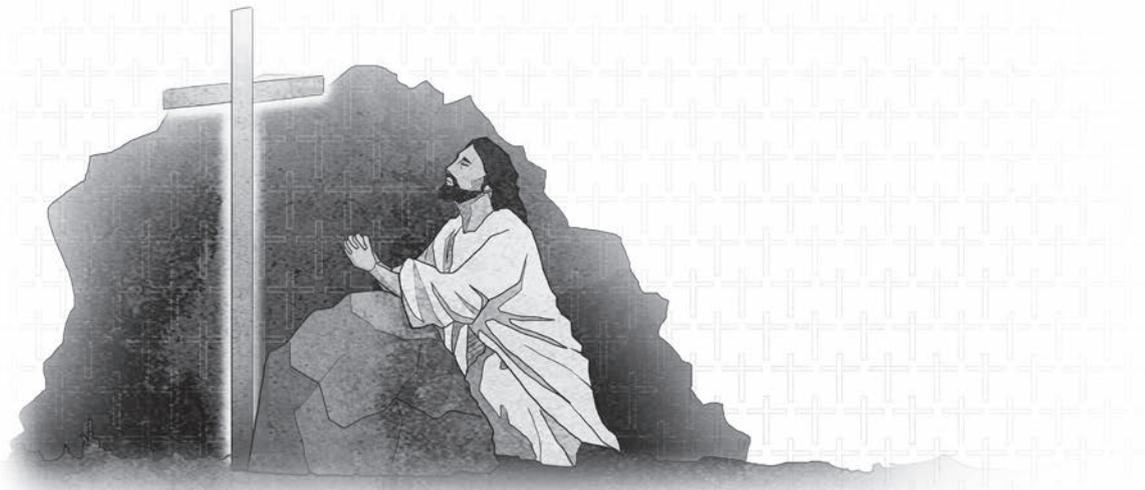
죽음의 과정에서, 어떤 강력한 정화가 일어납니다. 속량은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능력,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동의의 문제이며,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에 자신을 여는 문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느님의 선성에 맡기는 문제입니다.

숙고할 가치가 있는, 죽음에 대한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당신이 위로받고 당신의 죽음에 대해 확신을 가질 축복을 받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의 영혼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알기를. 당신이 되돌아가는 집에서 환영받기를. 낯선 어딘가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떠난 적이 없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당신의 삶을 충만히 살기를. 연민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살기를. 당신 안에 있는 그리고 당신에 관한 모든 부정적인 것을 변화시키기를. 장수하여 죽음을 맞게 되기를.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죽음을 맞기를. 당신이 가는 길이 보호받고 환영받기를. 영혼의 친구 anam cara의 품 안에서 당신 영혼이 미소 짓기를.” 아멘.



잊어버린 지침

칼 아리코 신부/이청준 역, 국제관상지원단 소식지 2014년 12월



향심 기도의 네 번째 지침은 간단한 편입니다.

“기도가 끝나면, 2~3분간 눈을 감고 침묵 중에 머문다.”

잠시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 머뭙니다. 왜? 우리가 세운 침묵의 보고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일상의 업무 속으로 들어갈 때, 증진된 하느님의 현존과 활동도 함께 가져가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의 활동 속으로 우리 자신은 더 적게, 주님은 더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기도 마침 종이 울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시 일어나려 합니다. 어떤 피정에서, 기도 장소를 떠나기 전에 잠시 머무는 시간의 중요성을 언급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 이후로는 내가 움직이기 전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머무

르지는 않아야겠다는 압박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기도를 해치워버리고 싶은 날들도 있을 겁니다. 때때로 “나는 기도했어.” 라고 만족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일로 부드럽게 넘어가고, 곧바로 다른 일로 뛰어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잠시 머무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나는 향심 기도의 매우 소중한 열매, 즉 향심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행하는 일에 참으로 현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한 압박감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속에서 사는 법을 배웁니다. 그것은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현존이라는 새로운 태도를 배우는 일입니다. 과업을 완성하는 것만이 기쁨일까요? 과정 안에, 짧은 순간 안에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을

살아갑니다. 나는 사람들이 식사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를 좋아합니다. 주의를 기울여서 준비할 때와 그저 해치우기만 할 때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곳에 있으면서, 과정을 즐기고, 그 순간에 머물 때는 맛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해치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만족감은 마지막에만 올 것입니다. 아마 그건 순간적일 것입니다. 만족의 미소는 얼굴에 나타났다가 다음 일로 넘어가면서 사라질 것입니다. 무언가가, 말하자면 관상적 요소가 빠졌습니다.

당신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어디에 주의를 기울입니까? 현 순간에 머물고 있습니까? 라우렌시오 형제와 드 코사드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당신이 과거 사건을 생각하고 있다면 당신은 자신에게 죄책감이나 분노나 기쁨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고 있는 셈입니다. 누군가에게 행한 일에 대한 죄책감, 누군가가 나에게 행한 일에 대한 분노, 좋은 시절을 생각하면서 느끼는 기쁨.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만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바로 지금'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일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자신에게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기대를 선물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크 트웨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는 동안 많은 걱정을 했다. 그 중에 일부만 현실이었다." 이는 매우 심오한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요한은 영적 결혼과 같이 온전히 헌신하며 하느님과 맺어지는, 즉 '무 nada'이면서 '전부 todo'인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영적 혼인에 대해 가르칩니다. 이것은 죽음의 순간에 놓아버리는 법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순간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무가 될 때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차원에서 나선형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숨을 쥐어짜내시는 죽음의 순간이 옵니다. 그러고 나면, 십자가의 요한의 표현처럼, 전

부를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를 받아들일 만큼 비워졌기 때문입니다.

향심 기도는 죽음을 위한 준비이자 삶을 위한 준비입니다.

향심 기도 후에 몇 분간 머물러 있으면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순간순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감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더욱 자각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요한의 가르침에 따르면, '무'가 오고 그 다음에 전부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순간에도 현존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향심 기도 후에 잠시 머무는 순간의 가치를 음미할 때, 이것이 하느님 말씀의 현존 속에 머무는, 렉시오 디비나와도 유사함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듣고 숙고하고 응답한 후에 쉬면서 말씀이 스며들도록 합니다. "하느님,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알아차리게 된 말씀에, 저를 감동시킨 생각에, 제가 당신께 드린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기에 당신이 원하시는 맛을 더하도록 은총을 주소서. 그것이 제 삶에 필요한 정화과정이 되도록 당신의 원료를 더해주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당신께서 더하시도록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은 양육시켜야 하는 차원에서 저를 양육시킬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저 읽고 숙고하고 응답한 뒤에, 끝나자마자 곧바로 책을 덮고 다음 일로 넘어간다면, 대화를 차단하는 셈입니다. 당신은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수련의 열매를 결코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토머스 신부는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에서 다음과 같이 상기시킵니다. "향심 기도의 목적은 관상 기도가 아니라 관상 상태이다. 즉, 아무리 이색적이고 확신을 주는 체험이라 할지라도, 체험이 목적이 아니다. 의식의 신비스러운 재구성을 통해 다가오는, 하느님에 대한 항구하고도 지속적인 인식이 목적이다."

갈맷길을 산책하며

정미레 (크리스티나)

평생 살던 서울을 떠나 바닷가 갈맷길 산책로를 따라서 붉은 즐장미가 곱게 휘감긴 담장길이 몹시도 아름다운 이 동네로 용감하게 이사를 왔다.

처음에는 산, 바다, 강과 도시가 어우러진 멋진 부산과 또 겨울에도 따뜻한 기후마저도 참 좋았지만, 매사에 적응이 빠르지 못한 마음과 몸 탓에 병원 다니기 바빴고, 새로운 친구 사귀는 용기도 없어서 외롭고 울적한 날들이 점점 많아졌다.

그리고 서울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만 자꾸 들었다.

바로 그때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반모임에서 만난 비아 자매님으로부터 향심 기도 모임에 참석하라는 권유를 받았고, 그 자매님의 따뜻한 배려와 친절하고 열정적인 봉사와 헌신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며 점점 향심 기도에 빨려 들어갔다.

젊은 시절부터 명상에 관심이 많았지만 처음 시작 후 약 1년 이상이나 기도가 어려웠고, 잘 하고 싶다는 욕심이 지나쳐서 분심이 심하고 마음이 조급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정 때, 지도 수녀님께서 “여러분 향심 기도를 잘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Try not to try” 라고 말씀해 주셨다. 아! 바로 이거구나! 나는 무엇이든지 너무 잘 하려고 지나치게 욕심내고, 걱정하고, 집착하고, 생각이 많아서 몸도 마음도 아픈 것이었구나!

그 후로 6년이 지난 지금 봉사자를 통해 이끌어 주신 성령의 은총으로 향심 기도 수련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온갖 근심, 걱정, 집착하는 습관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몸도 마음도 자유스러워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향심 기도 회원들과 함께 기도와 영적독서와 말씀 나누기를 할 때면 역시 둘 이상 모인 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셨다. 침묵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순명하는 참 기쁨을 깨닫게 되는 향심 기도의 소중한 선물을 받으려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오늘도 아름다운 갈맷길을 산책하며 주님께 찬미와 영광과 감사를 드린다.

뜻밖의 선물

김종애(아네스)

2014년 1월 콧속이 짝짝 얼어붙는 신년벽두에 숨가쁘게 달려갔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은 울화병을 고칠 수 있기를 잔뜩 기대 하면서...

2박 3일의 피정 중에 희망은 점점 줄어들고 체념으로 마음은 더욱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피정이 끝나갈 무렵 말씀 뽑기를 했습니다.

상본 두 장을 뽑았는데, 저는 더 이상 스스로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두 장의 상본은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예수님과, 병사들에게 온통 피투성이 몸으로 매를 맞으며 조롱을 받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가슴에 바윗돌을 두 개 더 얹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마음대로 울 수도 없었던 상황이라, 끄끙거리며 집에 돌아와서는 앓아누웠습니다.

우울증 속으로, 그 속으로 계속 빨려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기도도 할 수도 없었고, 절망이란 단어도 사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무의미한 시간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절망의 깊은 늪은 점점 깊어지는데 그 동안 인연이었던 사람들의 안부 전화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농산물과 생필품을 끊이지 않고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어느 날 택배 아저씨의 얼굴을 보자,

하느님께서 용기를 내어보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도착하는 택배를 바라보며, “하느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시는데 내가 얼른 일어나야지, 내가 쓰러지면 그 동안 나에게 격려를 받고 나로 인해 힘을 얻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름의 이유와 명분을 찾으며, 힘든 투쟁을 벌였습니다. 이 고립을 털어버리기 위해 점점 굳어가는 다리를 간신히 움직여, 지인을 찾아가 치료받기 시작했고, 몇 달 후에는 계단을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주보에 공지된 씨튼 영성의 집에서 열리는 향심 기도 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당 안의 침묵이 너무 좋아서인지 피정의 집이 많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매주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향심 기도 후에 읽고 나누는 시간은 늘 보석과 같이 느껴집니다.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현실을 누군가와 나누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를 알아가는 그 시간, 누구도 그 이야기에 비평이나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내 이야기에 누군가 공감을 해주거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일들을 이야기 할 때면,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옆자리에 앉아 함께 기도하는 자매님이 있어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집에서 느끼지 못했던 진한 침묵이 너무 좋았습니다. 소규모 기도모임이라서 소박하고 단출한 느낌 또한 좋았습니다. 그렇게 절박했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대로인데,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스스로 기력을 찾아가고 평화를 찾아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자칭 구도자의 행복

정정기(아우구스티누스)



‘2011년 상반기 한국 관상지원단 소식지 제 9호’ 글머리에 보면 토머스 키팅 신부는 절대자, 유일신, 성삼위, 브라만... 등 어떻게 호칭하든 ‘궁극적 실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시고, ‘궁극적 실재’를 찾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표현하셨는데 외람되지만 저도 궁극적 실재를 찾기 위한 끊임없는 갈증, 고통, 번민, 방향의 길을 살아 온 것이 약60여년 된 것 같으니 그렇다면 저도 작은 구도자였을까요?

하느님을 믿게 된 동기가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면 저는 좀 별난 과정을 통하여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궁극적 실재이신 절대자 하느님께서 제 나이 30세 되던 해에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 후 약 40여년이 지난 뒤에 향심 기도를 시작하게 된 저의 영적 여정은 결코 순탄치 못하였으나 갈증과 고통, 번민 등을 통하여 지금은 행복을 느끼고 있으니 너무 큰 하느님의 은총이고 참으로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66년 1월경 어느 사찰 모퉁이에 있는 흙담집 어두운 방에서 ‘나를 찾는 공부(?)’를 하다가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사랑 자체이신 ‘실재’앞에 모래알 보다 작고, 약하고, 무능한 제가 ‘하느님 제가 졌습니다.’하며 무릎을 꿇고 통곡과 희열이 범벅이 된 밤을 지내고 나서 제가 만난 ‘실재’ 그분이 천주교에서 신앙하는 바로 ‘하느님’이시리라 생각하고, 당시 외국 신부님이 계셨던 시골 성당을 찾아

갔고 바로 교리를 배우기 시작하여 그해 성탄전날 (1966,12,24) “아우구스티누스”이라는 세례명으로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문제. 혼인문제. 사회생활 문제 등이 저에게는 벽으로 닥쳐오며 고뇌는 계속되었고 기쁜 생활만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현실은 어려운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주어진 대로 살자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은 가혹했으며 할 수 없이 세례 3년 만에 공직 생활을 하게 되었고 객지에서 셋방을 전전하면서 4남매를 기르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결혼까지 시키는 등 희비가 함께하는 약40여 년간의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헤매던 역사와 비견할 수 있을까요?

그 동안 저는 하느님을 떠나거나 벽을 쌓지 않고 제 간에는 주일을 충실히 지키며 교회의 품에서 산다고(각종 신심단체, 사목회 등에 관여하여 봉사하고 그것으로 거룩하게 산다고) 자부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23년간의 공직생활을 그만두고 자영업을 하면서도 나머지 여생은 나이 70이 넘으면 조용한 산촌으로 내려가 미련이 남았던 동양철학. 타종교(불교) 등도 공부하고 신앙도 좀 더 성숙하게 키워나가자는 ‘지식욕’이 발동하던 차에 하느님께서는 그 시기를 1년 정도 앞당겨 주셨습니다. 2005년 9월경 제가 대낮에 운전하다가 큰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말직이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데 관여했던 사람이 경찰서로, 검찰청으로 그리고 마침내 피고인이 되어 재판까지 받았습니다.

자영업도 폐업하고 참회의 날을 몇 달 지내고 나니 몸도 망가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006년 여름. 대장암. 위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고 대장 절제수술과 몇 달 후 두 번의 위 점막수술을 하고 나서 도시 생활을 떠나 지금 기거하고 있는 산 속에 와서 요양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리지도 가난했던 농촌 가정의 8남매 맏이와 5대 장손, 그리고 초등학교 때 입었던 육체적 장애도 부족하여 하느님은 왜 이렇게 저에게 시련과 고통을 주시는가? 산 속에서 울며 하느님을 원망까지 하였습니다. 육체적 질병은 빠르게 치유되어 마음의 여유가 생기자 이제 돈도, 명예도, 권력도 모두 잃었으니 바로 그 '지식욕'을 발동하여 공부를 시작하자 우선 내가 반평생을 믿어왔던 '하느님 공부'를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면서 다른 '결공부'도 같이 해보자는 마음이 들어서 2008년 봄 광주대교구 평생교육원에 신학 아카데미 반에 등록을 하고 매주 두 번씩 하는 교육에 참여하여 2년 후 교리교사 자격 수료식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알고 믿어왔던 신앙생활은 너무 껌데기 신앙이었고 형식적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비참은 오히려 큰 은총이었고 하느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지 못한 것이 오히려 후회되었습니다.

이렇게 교리교사 교육을 마치는 수료 피정이 2010년 1월 지리산 피정의 집에서 2박 3일간 있었는데, 그 피정이 정규원 신부님과 장미자 데레사님이 주도하신 '향심 기도 소개피정' 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신앙의 새로운 과정의 영적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거기서 '향심 기도'라는 말도 알았고 천주교회에도 이러한 방식의 기도가 있다니! 하고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으며 거기서는 감히 교육 느낌도 말 못할 정도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피정에 여러 번 참석한 터였지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평신도로서 가장 정도 인가라는 점에 중점을 두었던 것 같고 기도는 소리 기도 만이 전부인 것같이 앵무새처럼 대뇌이며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라는 청원기도 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리산에서 있었던 '향심 기도' 피정은 침묵 속에서 우리 안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하느님을 만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하느님과 일치를 이룬다는 것이고 '나'를 내려놓고 인간조건에 집착하는 것을 버리는 수련의 기도, 오로지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하느님의 뜻에 맡기는 단순한 기도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행복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가슴, 마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니 그때까지 갈구하던 '지식욕'을 과감히 버리고 하느님만을 따라가는 수련의 향심 기도가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교구 주보를 통하여 매월 첫 월요일에 향심 기도 쇠신의 날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해(2010년) 5월부터인가 거의 매번 그 쇠신의 날에 참여하였던 것이 어언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내가 먼저 매일 두 번 20-30분 정도 수련하고 다음에 가족과 함께, 그리고 한주에 한 번 정도 본당에서 모임을 가지며 한 달에 한 번 초본당으로 월 쇠신의 날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 수련이라고 배웠는데. 저는 저 혼자 매일하고 한 달에 한번 월 쇠신의 날에 참여하는 것으로 5년을 보냈으니 안타깝습니다.

아직까지 본당에는 기도 모임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간모임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언젠가는 주간 모임을 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시기를 갈망합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는 것이니라…….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다.' 라는 향심 기도 월 쇠신의 날에 배운 '아무것도 너를' 이라는 노래를 가끔 부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니 하느님! 깊이, 뜨겁게 감사드립니다. 아멘

향심 기도를 통한 생활의 변화

성기호(안토니오)

향심 기도 시작한 지 8개월이 되어가는 데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랑으로 다가움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 제 아내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잘해 준 것도 없는데 사이가 점점 새싹이 움트듯 더욱 가깝게 느껴지고 포근한 말로 “사랑해 여보”라는 메시지를 자주 보내올 때 코끝이 찡하도록 고맙고, 사랑스런 온기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요즘 삶이 즐거워지고 생활의 기쁨을 조금씩 체험하게 됩니다.

난 요즘 즐겁고 행복합니다.

비록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럽진 않지만, 나 자신이 처한 삶을 통해 예수님께 서 내 주변의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으로부터 그 분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쉬우면서 쉽지 않은 기도

최민정(젬마)

처음 이 기도를 할 때 무언가 석연찮은 게 있었다. 답답해서 앉아있기도 힘들고 쉽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거룩한 단어도 떠올려지지 않아 그림을 떠올렸다. 자비의 예수님 상을 떠올리고 앉아있었다. 기도 시작중이 치면 다들 좌정하고 있는데 나는 전쟁터에 끌려온 기분이었다. 생각은 밀려오는데 아무것도 안해야하니 그걸 가만히 보고 있자니 답답증이 일었다. 굳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생각들 땀에 안절부절 못하다 몇 개월 하곤 쉬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 있다. 표면상으론 기도 자리 잡고 하는 언니들이 있었고 내면으론 분당 활동을 시작하면서 마음이 바빠지면서였다.

상황에 쫓기듯 하면서 조용히 침잠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기도를 하면 정리가 되었다. 집안 청소를 한 기분이랄까~ 늘 그렇진 않았지만.

바닥에 가라앉은 감정들이 일어날 때면 벌떡증이 일어 기도하다 일어나곤 했다.

이론상으로는 떠나보내고 그대로 앉아 있으라고 하는데 고문 받는 거 같아서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았다. 에라, 모르겠다. 시늉이라도 해보자는 맘도 있었다.

예전에 요가를 잠깐 배운 적 있었는데 호흡을 들여다보고 가만히 있어보자로 방향을 잡으니 조금씩 되었다. 요가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데 그치지만 기도는 하느님의 관계까지로 들어가니 좋았다.

이제 가만히 있어보면 내모양이 보인다. 적나라하게 얼마나 잘 보이는지 깜짝깜짝 놀란다.

감추어두었던 가면들, 척 했던 것들, 가식덩어리들 민망하고 부끄럽다. 그러다 그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자리 잡고 있던 유산들, 거짓자아 라는 걸 알게 되었다. 병명을 알게 되니 그다음은 훨씬 쉬웠다. 내 자신에게 측은한 마음도 생기고 가족들 타인도 조금 더 여유롭게 보게 되었다. 그리고 하느님이 가까워졌다.

기도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구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나는 시간만 내고 앉아 있으면 되는구나. 그분도 내게 말을 걸고 싶어 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피해 다녔구나. 길들여지는 게 싫어서 내 생각만 커서 예수님 나무에서 열매만 따서 가느라 바빴구나. 예수님은 그 나무 아래 있기를 바라셨는데.

사회적으로 '이래야한다 저래야 성공이다'에 휘둘리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했지만 겉눈으로 남들은 어떻게 사나 눈치 보고 있었다. 주인답게 살지 못했다. 나를 부정하고 성과만을 따라가다 보니 결과도 늘 맘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 얻은 수 없는 거였다.

진정한 행복은 직시하는 것, 과대포장을 버리는 것, 솔직해지는 것, 진짜 나를 만나는 것인데...

이제는 생소한 것과의 싸움이다 오랫동안 길들여지던 것을 버려야 한다.

이건 또 다른 두려움이다 기도를 안 하면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게 더 익숙하니까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버려지지 않는다. 오랜 기간 입었던 옷이라...

난 사람들이 두렵다 아니 어쩌면 내가 두려워하는 건 진실이었을지도. 예수님은 명품을 주신다는 데도 나는 짝퉁이 편한가보다. 그게 익숙해서 슬프다. 안 좋은 걸 알면서도 내 것이 최고인양 끼고 앉아있는 내 모습이 안쓰럽고 불쌍하다.

세월호 사건이 나고도 그랬다. 처음에는 가슴 아프고, 절절하고, 너무 애통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만큼 아프지 않다. 아~ 무섭다, 몸에 익은 데로 사는 내 모습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상황이 닥쳐도 나는 또 이 모습으로 돌아올거라는게 씩씩하다. 하느님이 바라시는 게 이런 건 아닐 텐데... 아무리 절박한 기도도 그 때 뿐 그 상황이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의 반복. 오래 묵은 때는 쉽게 벗겨지지 않는다.

주님, 제 힘으로는 한 발짝도 못가겠어요 좀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요. 내가 몸부림칠수록 늪에 빠질 뿐입니다. 저를 불쌍히 보시고 잡아주소서. 혼자 허덕이다 허망하게 마치지 않도록 주님 사랑의 빛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비춰주소서. 혼자 사는 돼지가 아니라 같이 가는 기러기가 되도록 힘과 용기를 허락주소서.

향심 기도의 선물

주석환(유스티노)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흔히들 하는 이야기 중에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총은 항상 크다고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받은 향심 기도에서의 선물 역시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곧바로 대부님께 이끌리어 향심 기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 모습을 결눈질 하면서 흉내를 내어 시작한 것이 얼마정도 지나게 되자 점차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내와 함께 신부님이 해 주시는 피정과 교육에도 여러 번 참가하게 되면서 향심 기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내면세계에 잠재되어 있던 무의식의 그릇을 살짝 치신 것입니다. 그 당시 “바로 이것이구나” 하면서 저의 무의식의 그릇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날 교육을 마치고 내려오던 차안에서 아내와 함께 그 느낌을 나누었고 그렇게 차돌같이 단단했던 저의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가장 가까운 아내를 대하는 저의 의식이 바뀌면서 그 동안의 습관적인 행동들도 반성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거의 30분 이상씩 향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의 무의식 세계의 변화로 인하여 가정에서 평화가 정착되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직장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주님의 크나 큰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상생활에서의 열매, 이것이 바로 향심 기도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지금도 향심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신자들에게 이 조그만 지면으로 많은 것을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매일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큰 은총이므로 반드시 한 번 참가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을 알도록 안내해 주심에, 조상님들이 천주교 신앙을 가지게 해 주심에,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느님을 알게 해주심에, 성모님을 어머니로 주심에, 성모님을 삶의 모델로 보내주심에, 수도생활을 할 수 있게 불러주심에, 함께 하는 수도가족이 있어서, 주님께서 늘 곁에 계셔 주심에, 죄 많은 저를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심에, 부족한 저를 늘 새로 나도록 보아주심에, 약점 많은 저에게 항상 새롭게 끌어주심에, 잘못을 하고도 모르는 저를 참아 주심에, 어리석은 저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심에, 늘 먼저 다가오시는 당신이시기에, 하느님의 깊은 신앙심 있는 어머니를 주심에, 의로우신 아버지를 보내주심에, 형제들을 여섯 명이나 주심에, 오빠를 사제로 불러 주심에, 자랑스러운 언니들을 보내 주심에, 대견한 동생들을 보내 주심에, 믿음직한 조카들을 보내 주심에, 항상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파견해 주심에, 천사를 보내주시어 길에서 보호해 주심에, 위험한 처지에서 수도천사를 보내주심에, 어제의 기억을 새롭게 하도록 해주심에, 오늘 이 시간을 주심에, 돌아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기도할 수 있는 정신을 주심에,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심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심에, 멀리서도 전화로 소식을 나눌 수 있어서, 아름다운 장면을 담을 수 있게 해주심에, 우편을 이용해서 소식을 전할 수 있음에,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게 기사님이 있어서, 택시를 탈 수 있게 좋은 환경을 주셔서, 생활경제를 보장받을 수 있게 공동체 주심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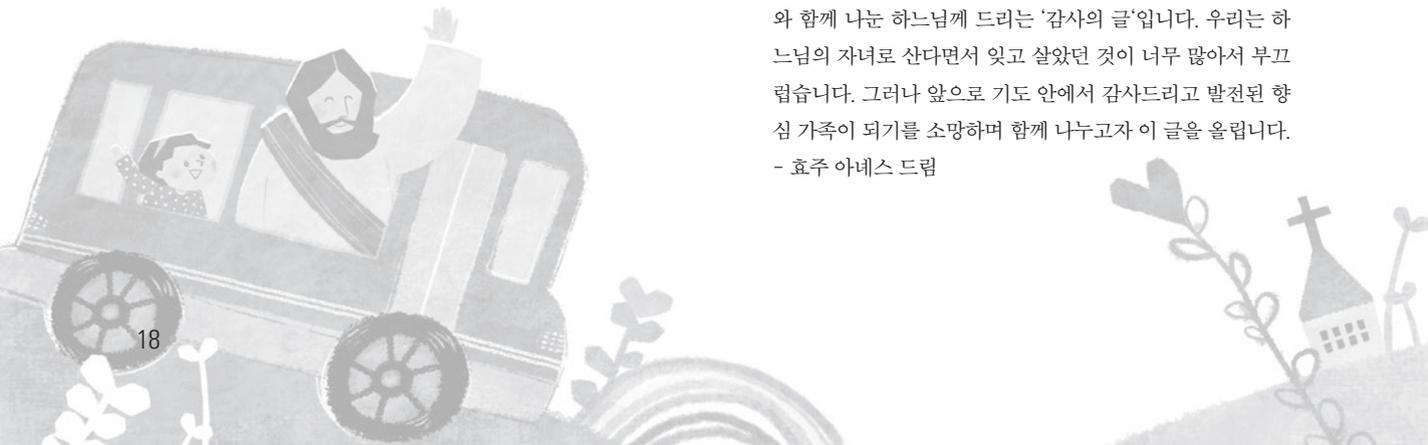
장해 주심에, 교통수단을 통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일깨워 주심에, 표현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갖게 해주심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자기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 주심에, 지금 살아 숨 쉬고 있음에

분원공동체의 언니를 주심에, 서로 나눌 수 있는 영육을 나누게 해주심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계시기에, 현재 신앙생활의 모델이 있기에, 가면을 벗으라고 일러주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성령께 응답하도록 순간을 일깨워주시기에, 그분께서 침묵의 기쁨을 얻게 해 주셨기에, 쓸데없는 일에는 신경 쓰지 않게 해 주심에,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에, 좋은 글들을 알아차리게 인도해 주심에, 사제를 보내주시어 영적여정에 함께해주심에, 주님과 일치할 수 있는 미사가 있기에, 죄의 사함 받을 수 있는 고백성사가 있음에, 주님과 일치할 수 있는 성체성사가 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있기에, 성실한 신자들을 보내주심에, 이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심에, 작은 공동체에서 선교할 수 있는 시간주심에, 신자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해주심에, 잠을 잘 수 있는 거처를 주심에, 잠을 이룰 수 있도록 따뜻한 방을 주심에, 잠들었을 때 치유해 주심에, 새날을 맞이하도록 눈을 뜨게 해주심에, 마실 수 있는 맑은 물을 주심에, 맑은 공기를 주심에, 따뜻한 햇볕을 주심에, 가뭄에 비를 내려주심에, 눈이 내려 동심 세계를 펴도록 해주심에, 양지바른 집을 마련해 주심에, 무언가를 하도록 지혜와 의욕을 주심에, 지금 해야 하는 일들을 일깨워주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웃들을 보

내주심에, 누군가에게 말을 전할 수 있는 소리주심에, 이웃과 나눌 수 있게 마음을 주심에,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약함을 주심에, 건강한 육신을 주시어 활동할 수 있음에,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식욕주심에, 배설을 잘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심에, 소변을 잘 볼 수 있도록 때와 장소를 주심에, 기쁨, 슬픔도 느낄 수 있도록 감정을 주심에, 하고 싶다는 의욕을 심어주심에,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심에, 산을 오를 수 있게 다리의 건강주심에, 산에 소나무, 여러 잡송들을 심어주심에, 산책할 수 길을 내어 주심에,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의 온갖 꽃들을 주심에, 들녘에 이름 모를 수많은 잡초들을 주심에, 길을 가는데 동행자가 있게 해주심에, 온갖 물고기를 만들어 먹게 주심에, 오곡백과를 풍성하게 내어주심에, 글을 쓸 수 있도록 손을 주심에, 고운 음성을 주어 다정함을 나눌 수 있음에,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눈을 주심에, 높은 하늘을 보고 감동할 수 있게 해주심에,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느낄 수 있음에, 대자연의 웅장함을 즐길 수 있기에, 자연의 신비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심에, 농작물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을 맛보기에, 색깔에서 행복을 맛보게 해주심에, 고운 색깔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심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만끽할 수 해주심에, 혀를 주시어 맛을 느끼게 해주심에, 식욕을 갖게 해주심에, 숨을 쉴 수 있도록 입과 코를 주심에,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주심에, 아름다운 소리를 조화롭게 낼 수 있음에, 걸을 수 있도록 다리를 주심에, 추울 때 따뜻한 옷을 입

혀주심에, 따뜻한 음식으로 몸을 녹여주심에, 온수가 있어 더러움을 씻을 수 있음에, 올바른 자세를 갖도록 신체구조를 주심에, 옛 친구 새 친구들을 주심에, 성실한 삶으로 내일을 약속하도록 해주심에, 병원과 약국이 있어서, 옷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있어서, 세탁기가 있어서, 다리미가 있어서, 청소기가 있어서, 냉장고, 냉동실이 있어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어서, 방 안에 개인용 책상이 있어서, 편안한 의자가 있어서, 일본어 매일미사를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서, 일본어를 읽을 수 있어서, 웃음을 줄 수 있어서, 대상방의 행동에 응답할 수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기에, 그 순간 하느님을 찾아 부를 수 있기에, 현재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에, 지금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기쁨이기에, 솔직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열쇠임을 알기에, 하느님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기에, 성경말씀을 쓰고 읽고 묵상할 수 있기에, 말씀을 나눌 수 있기에, 기쁨도 슬픔도 나눌 수 있기에, 농사철에 밭에 나가서 도움을 줄 수 있기에, 농사일을 배운 어린 시절이 있기에, 가난함을 체험할 수 있었기에, 아픔을 겪었기에, 위로를 받았던 기억이 있기에, 사랑했던 순간의 기억들이 있기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기에, 존경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 계시기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기에, 과오를 범한 적이 있었기에,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었기에, 말로 사람에게 상처 주었던 기억들이 있기에, 용서받았던 기억들이 있기에, 수도생활에 후원자가 있기에,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기에

* 추신 : 영적 여정을 함께 걷는 도반이 2014년을 보내면서 저와 함께 나눈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글'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산다면서 잊고 살았던 것이 너무 많아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도 안에서 감사드리고 발전된 핵심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나누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 효주 아네스 드림



2015년도 향심 기도 피정계획

❖ 소개 강의 및 피정 · 후속 강의 및 심화피정 · 집중피정 ❖

| 피정 | 일시 | 장소 | 강사 | 연락처 | 신청자격 |
|------------------|--|----------------------|--|--------------------|---------------------------------|
| 1일 소개 강의 (3회) | 4월 20일(월), 4월 24일(금), 4월 27일(월) | (광주) 중흥동 성당 | 정규완 신부 외 3명 | 010-6288-0237 | |
| 1일 소개 피정 | 4월 14일(화) 7월 14일(화) 10월 13일(화) 오전 10시 - 오후 4시 | (성북동) 씨튼 영성센터 | 최승희 수녀 | 02)744-9825 | |
| 1박 2일 소개 피정 | 6월 6일(토) ~ 7일(일) 11월 14일(토) ~ 15일(일) 오후 4시 - 오후 4시 | (논산) 씨튼 영성의 집 | 박봉석 형제, 사랑의 씨튼 수녀 | 041) 733~2992~4 | 누구나 |
| 1박 2일 심화 피정 | 6월 12일(금) 오후 3시 ~ 6월 13일(토) 오후 3시 12월 4일(금) 오후 3시 ~ 12월 5일(토) 오후 3시 | (성북동) 씨튼 영성센터 | 이청준 신부 | 02-744-9825 | |
| 2박 3일 소개 및 심화 피정 | 3월 6일(금) 오후 4시 ~ 3월 8일(일) 오후 4시 10월 9일(금) 오후 4시 - 10월 11일(일) 오후 4시 | (논산) 씨튼 영성의 집 | 이청준 신부, 사랑의 씨튼 수녀 박봉석 형제, 사랑의 씨튼 수녀 | 041)733-2992~4 | |
| 3박 4일 심화 피정 | 3월 15일(일) 오후 5시 ~ 3월 18일(수) 오후 3시 | | 이청준 신부 | | 6주 후속강의 및 2박 3일 심화 피정을 마친 분들 |
| 6주 후속 강의 (3회) | 6월 8일(월) 6월 12일(금) 6월 15일(월) | (광주) 중흥동 성당 | 정규완 신부 외 3명 | 010-6288-0237 | |
| 6주 후속 강의 | 4월 14일(화) 7월 14일(화) 10월 13일(화) * 위에 열거한 각각의 소개 강의가 끝난 후 6주 후속강의가 이어집니다. | (성북동) 씨튼 영성센터 | 최승희 수녀 | 02)744-9825 | 소개 강의 및 피정을 마친 분들 |
| (대구) 2박 3일 피정 | 8월 23일(일) 오후 3시 ~ 8월 25일(화) 오후 3시 | (대구 사수동) 베네딕도 영성관 | 이청준 신부 | 010-7795-0639 | 향심 기도에 투신하고 있는 분들 |
| 9박 10일 집중피정 | 9월 7일(월) 오후 4시 ~ 9월 16일(수) 오전 | (논산) 씨튼 영성의 집 | 한국관상지원단 교수진 | 02)421-1968 | 3박 4일 이상 삼화 피정을 마친 분들 (선착순 30명) |
| (성공회) 1박 2일 피정 | 1월 17일(토) 오전 10시 ~ 18일(일) 오전 8시 마침 3월 14일(토) 오전 10시 ~ 15일(주일) 오전 8시 마침 3월 27일(토) 오전 10시 ~ 28일(일) 오전 8시 마침 7월 18일(토) 오전 10시 ~ 19일(일) 오전 8시 마침 9월 12일(토) 오전 10시 ~ 13일(일) 오전 8시 마침 11월 21일(토) 오전 10시 ~ 22일(일) 오전 8시 마침 | (강촌) 성 프란시스 피정의 집 | 변요한 신부 | 010-8886-0046 | 향심 기도를 하시는 분들 (입금순 16명) |
| (성공회) 4박 5일 피정 | 5월 18일(월) 오후 2시 ~ 22일(금) 오후 1시 마침 10월 19일(월) 오후 2시 ~ 23일(금) 오후 1시 마침 | | | | |



❖ 월 침묵 및 연수 · 월 모임 · 새신의 날 · 전국 소기도 모임 ❖

| 피정 | | 일시 | 장소 | 강사 | 연락처 | 신청자격 | | | | |
|----------------|-----------------------------|--|------------------------|---------------|--|--|-------------------|----------------|--------|---------------|
| 월 침묵 피정 | | 3월 10일(화) | (성북동) 씨튼 영성센터 | 윤행도 신부 | 02) 744-9825 | | | | | |
| | | 4월 21일(화) | | | | | | | | |
| | | 5월 19일(화) | | | | | | | | |
| | | 6월 16일(화) | | 천정철 신부 | | | | | | |
| | | 7월 21일(화) | | | | | | | | |
| | | 9월 1일(화) | | | | | | | | |
| | | 10월 6일(화) | | 최승희 수녀 | | | | | | |
| | | 11월 17일(화) | | | | | | | | |
| | 12월 15일(화) | | | | | | | | | |
| 월 새신의 날 | 울산 | 2월 22일(일) | (울산) 새 예루살렘 공동체 | 왕영수 신부 | 011-488-1239 010-8029-6329 010-3834-4997 | 향심 기도를 하시는 모든 분들 | | | | |
| | | 3월 29일(일) | | | | | | | | |
| | | 5월 30일(일) | | | | | | | | |
| | | 6월 28일(일) | | | | | | | | |
| | | 8월 30일(일) | | | | | | | | |
| | | 9월 27일(일) | | | | | | | | |
| | | 11월 29일(일) | | | | | | | | |
| | | 매월 마지막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 | | | | | | | |
| | | 광주 | | | | | 1월 5일(월) | (광주) 증흥동 성당 | 전영 신부 | 010-6288-0237 |
| | | | | | | | 2월 2일(월) | | 이청준 신부 | |
| | | | | | | | 2월 3일(월) _ 봉사자 피정 | | 정규완 신부 | |
| | 3월 2일(월) | | 박석렬 신부 | | | | | | | |
| | 4월 6일(월) | | 미정 | | | | | | | |
| | 5월 4일(월) | | 정규완 신부 | | | | | | | |
| | 6월 1일(월) | | 천정철 신부 | | | | | | | |
| | 7월 1일(월) | | 미정 | | | | | | | |
| | 8월 3일(월) | | 정규완 신부 | | | | | | | |
| | 9월 7일(월) | | 미정 | | | | | | | |
| | 10월 5일(월) | | 미정 | | | | | | | |
| 11월 2일(월) | 미정 | | | | | | | | | |
| 12월 7일(월) | 정규완 신부 | | | | | | | | | |
| 대전 | 6월 27일(토) 오전 10시 ~ 오후 4시 | 대철회관 (대전청소년수련원) | 이청준 신부 | 010-2948-3852 | | | | | | |
| 청주 | 3월 27일(금) ~ 28일(토) | 배티 피정의 집 | 이청준 신부 | 010-9408-9670 | | | | | | |
| 월 모임 | 대전 | 매월 셋째 토요일 오전 10시 ~ 12시 * 8월 모임은 쉽니다. | (대전) 내동 성당 요한의 방 | 박봉석 세례자요한 | 010-2948-3852 | | | | | |
| 향심 기도 연수 | 봄 학기 | 낮반 | 거창 성당 | 이청준 신부 | 010-9427-7894 | 누구나 *교재: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 | | | |
| | | 저녁반 | | | | | | | | |
| | 가을 학기 | 낮반 | | | | | | | | |
| | | 저녁반 | | | | | | | | |

소기도 모임

| 지역 | 장 소 | 일 시 | 연락처 | 전화번호 |
|-------|--------------------------------|-------------------------------------|---------------|--------------------------------|
| 서울 | 송파동 모임 | 매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 김동한 프란치스코 | 010-2801-1974 |
| | 새길교회(4) | ①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최성림 목사 | 010-3741-0252 |
| | | ②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 |
| | | ③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 | |
| | | ④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 |
| 인천 | 만수 6동 |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 강경애 세실리아 | 010-4780-7867 |
| | * (성공회) 인천 계양교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변요한 신부 | 010-8886-0046 |
| 경기 | (남양주) 마석 성당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 김동한 프란치스코 | 010-2801-1974 |
| | * (부천) 성화의 집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강선희 목사 | 010-8631-7228 |
| | * (화성) 예수랑 교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전주희 목사 | 010-7963-0091 |
| | * (고양) 살림 교회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 김지호 목사 | 031) 912-4930 010-5101-4935 |
| 대전 | 내동 성당 _ 성체조배실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 황경해 아녜스 | 010-6630-6649 |
| | * (월모임) 내동 성당 - (지하1층)요한의 방 | 매월 셋째 토요일 오전 10시 | 김병연 요셉 | 010-2948-3852 |
| | 도동동 성당 - 성체조배실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 | |
| | 복수동 성당 - 유아실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30분 | 문숙희 데레사 | 010-6756-7990 |
| 충북 | 북대동 성당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김민지 글라라 | 043-233-9295 |
| | 영운동 성당 |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 우영옥 루시아 | 010-5480-8520 |
| | 사직동 성당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 최소자 카타리나 | 010-6506-8779 |
| | 신봉동 성당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미사 후 | 이현수 아가다 | 010-9933-3540 |
| | 분평동 성당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미사 후 | 최옥희 미리암 | 010-8844-0633 |
| | 청산 성당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 | 곽동금 아녜스 | 043) 733-2795 |
| | 미원성당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천경민 아가다 | 010-8827-2060 |
| 부산 | 좌동 성당 | 매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 정예규 아녜스 | 010-3878-9638 |
| | 남천동 성당 - 112호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송석미 스텔라 | 010-8306-8280 |
| | 부곡 성당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김귀연 세실리아 | 010-2322-5690 |
| | 당감 성당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40분 | 홍경애 골롬바 | 010-3742-4516 |
| | 활천 성당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조혜란 안젤라 | 010-5554-5488 |
| | 남산 성당 | ①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김정희 실비아 | 010-3035-6358 |
| | | ②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권진숙 빅토리아 | 010-8508-1691 |
| 민락 성당 |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 정미례 크리스티나 | 010-9222-8015 | |
| 울산 | 새 예루살렘 공동체 | ①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 오후 3시 | 왕영수 신부 | 052)239-1249 010-5488-1239 |
| | | *② 매월 마지막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 | |

| | | | | |
|--------|------------------|---|-------------------------------------|---|
| 대구 | 황금 성당 | 매주 화요일 저녁미사 후 | 노경희 크리스티나 | 010-6864-4668 |
| | 본리동 성당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 최해자 세라피나 | 010-7795-0639 |
| | 신서 성당 - 자택 |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 | 김미남 올리안나 | 010-2223-4484 |
| 경주 | 성동 성당- 성당 2층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 박장동 베드로, 류초아 안젤라 | 010-6477-3223 |
| 경남 | (진주)금산 성당 | 매주 목요일 저녁 미사 후 | 황혜순 올리안나 | 010-9667-8944 |
| | (창녕)남지선교성당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 차순희 비아 | 010-3572-4308 |
| | (창원)사파동 성당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최정옥 루갈다 | 010-9338-7078 |
| | (거제)장승포 성당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 정경화 도미니카 | 010-7559-1283 |
| | (거제)옥포 성당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 김복순 아녜스 | 010-9689-0072 |
| | (거제)장평 성당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소권임 올리안나 | 010-2557-8714 |
| | (거창)거창 성당 | ①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②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③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허재영 마르첼리노 이숙희 임마누엘라 천경숙 크레센시아 | 010-8775-8382 010-4128-2296 010-9467-6866 |
| 광주 | 중흥동 성당 | ①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정광자 베로니카 | 010-6756-0039 |
| | | ②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송정순 데레사 | 010-2626-8217 |
| | | ③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김인심 라파엘라 | 010-5089-1204 |
| | | ④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최옥순 세실리아 | 010-3999-6331 |
| | 학운동 성당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장동님 스텔라 | 016-8845-1493 |
| | 비아 성당 | ①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 표금숙 로사리아 | 010-2683-4103 |
| | | ②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안은경 발렌티나 | 010-9885-8814 |
| | 두암동 성당 | ①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이영임 안젤라 | 010-2273-8551 |
| | | ②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장충현 루치오 | 011-666-6931 |
| 계림동 성당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 정종남 모니카 | 010-2663-7790 | |
| 담양 | 창평 성당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이옥순 수산나 | 010-2610-0694 |
| 순천 | 조례동 성당 |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 장호정 마리아 막달레나 | 010-4855-0190 |
| | 저전동 성당 | 매주 월요일 오전 11시 | 박덕자 미카엘라 | 010-2629-3109 |
| 여수 | 선원동 성당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김지영 엘리사벳 | 010-7655-3952 |
| | 소호동 성당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이성숙 데레사 | 010-2616-3189 |
| 광양 | 광영동 성당 | 매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 김혜연 카리타스 | 011-9214-3663 |
| 곡성 | 곡성 성당 | 매주 금요일 10시 30분 | 유호숙 스텔라 | 010-6680-2073 |
| 전주 | 봉동 모임 - 자택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 황정애 막달레나 | 010-9780-6388 |
| 중국 | (북경)한인공동 성당 |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 이문희 벨리엠타 | 번호 미기제함, |

2014년도 각 지역별 소식

■ 한국관상지원단 ■

항심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반송되는 소식지가 많아서 2014년도부터는 소기도 모임 중심으로 소식지 우송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각 지역의 소기도 모임에 참석하셔서 봉사자에게 받으시거나, 한국관상지원단 전화(02-421-1968) 또는 이메일(koreacontout@dreamwiz.com)로 연락을 주십시오.

한국관상지원단 홈페이지(www.centeringprayer.or.kr)를 검색하시면 모든 일정과 한국관상지원단 소식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 ■

2014년 성북동 씨튼 영성센터에 김경순 수녀님의 후임으로 최승희 수녀님께서 오셔서 소개피정, 후속 프로그램, 월 침묵 피정을 이끌어주셨습니다. 성북동 영성센터에서 월 침묵 피정 때에 윤행도 신부님, 이청준 신부님, 천정철 신부님의 강의를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세 분(윤행도, 이청준, 천정철) 신부님께서 봉사하실 예정입니다. 서울지역 항심 기도 모임의 열정과 힘을 끌어올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울지역 소기도 모임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www.hyangsim.com)를 이용하십시오.

■ 인천 ■

인천지역에서 항심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혼자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소기도 모임에 참석하시면 서로 버팀목이 되어서 좋습니다. 함께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간사(010-4780-7867)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 대전 ■

2014년 대전지역 쇠신의 날 행사는 5월 31일 대철회관에서 가졌으며(강사 : 이청준 신부), 26명의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끈솔라따 선교수도회에서 10명이 참석하여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1박 2일 피정을 가졌습니다(강사 : 이청준 신부).

‘사랑에로의 초대’와 ‘중독과 신적 치유’에서 발췌된 자료를 가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2015년 대전지역 쇠신의 날은 6월 27일 토요일이니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기도회 월 모임은 매월 세째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내동 성당에서 이루어집니다. 항심 기도에 관심을 갖는 누구에게나 개방된 모임입니다. 항심 기도과 렉시오 디비나를 행하며 ‘하느님과의 친밀’을 공부합니다.

■ 청주 ■

2014년 3월 24일 33명이 피정을 하였고, 4월부터 매월 첫 주 월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완전 침묵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27~28일, 배티 피정의 집 1박2일 피정 계획합니다(강사 : 이청준 신부).

■ 마산 ■

2014년 거창 본당에서는 본당 신자 및 항심 기도에 관심이 있는 인근 신자들을 위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서 항심 기도 입문 강의, 인간 조건 등의 항심 기도 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윤행도 신부님은 교구의 바쁜 일정 중에도 금산, 장평성당의 항심 회원들을 위해서 봉사해주셨습니다.

■ 부산 ■

기도회 봉사자로 남산성당 김정희 실비아, 민락성당 정미례 크리스티나 자매님께서 새로 선임되었습니다. 소기도 모임 봉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해 주시고, 그동안 수고하신 유향미 글라라, 유건희 아녜스 봉사자님께 감사드립니다.

■ 울산 2015년도 계획 ■

- 울산지역 26개 본당 중에, ‘새 예루살렘공동체’ 외에는 항심 기도 모임이 없습니다. 2015년도에는 항심 기도의 저변 확대를 위해 소개모임을 몇 차례 가질 예정이며, 최소한 2개의 기도모임을 탄생을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자고 결정했습니다.

- 왕영수 신부님의 사제 서품 50주년인, 2015년 6월 21일(주일) 축일행사가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곳의 향심 기도 모임이 확장되고 질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기원하며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자 합니다.
- 부산 지역 향심 기도 모임과 봉사자들의 유대를 위해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영적 나눔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 광주 ■

2014년 광주지역 소개강의는 중흥동 성당에서 2회 실시, 56명이 수강했습니다. 후속 강의는 59명이 수강했습니다. 매월 쇠신의 날은 광주 및 각 지역별로 행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1월 쇠신의 날에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를 통독하고, 2월 3일 봉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쇠신의 날과 2회의 소개 강의 및 후속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심 기도 회원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9박 10일(9월 7일~16일)피정을 3월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피정을 하실 분들은 피정비와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부터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구 주소에서 신 주소로 변경이 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관상지원단의 메일(koreacontout@dreamwiz.com) 또는 주소(우편번호 138-825: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남로 108 MODS빌딩 512호(문정1동))를 공지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 간사 연락처 |

- | | | | |
|-------------------|---------------|-------------------|---------------|
| • 사무국장 박봉석 세레자 요한 | 010-6630-6649 | • 서울지역 한명숙 카타리나 | 010-8553-2374 |
| • 인천지역 강경애 세실리아 | 010-4780-7867 | • 대전지역 김병연 요셉 | 010-2948-3852 |
| • 청주지역 연인래 아가다 | 010-9408-9670 | • 마산지역 김명순 스콜라스티카 | 010-2363-5702 |
| • 부산지역 차순희 바아 | 010-3572-4308 | • 광주지역 김영재 알로이시오 | 010-6288-0237 |

※ 각 지역에서 문의 사항이나 토의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지역 간사에게 연락하십시오.

후원 회원 가입안내

한국관상지원단은 향심 기도를 통해 복음의 관상적 차원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의 영적 조직망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교 전통 관상기도가 보급되도록 도움을 요청합니다.

1. 가입방법 : 전화(02)421-1968)를 주시거나 또는 이메일 koreacontout@dreamwiz.com으로 가입자의 성명, 주소, 전화, E-mail등을 알려 주십시오.

2. 자동이체 납입방법 : 은행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적 사항을 이메일이나 전화로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은행 1006-701-302826 예금주 : 한국관상지원단)

3. CMS계좌 신청 :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 소식이 개별로 필요하신 분은 주소 또는 E-mail주소를 알려주시면 소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